

뉴스홈 | 최신기사

<베이징빛별스타> (19)미국 태권도 명가 '로페스 가문'

송고시간 | 2008-05-16 0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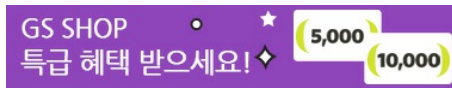


배진남 기자
기자 페이지

<베이징빛별스타> (19)미국 태권도 명가 '로페스 가문'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지난 4월 초 미국 올림픽 도전사에 한 페이지가 새로 써졌다.

한 집안 3남매가 나란히 같은 종목 대표로 뽐혀 2008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것이다.



주인공은 미국 태권도 명가 '로페스 가문'의 3남매다.

먼저 둘째 아들 스티븐 로페스(30)가 지난해 9월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세계예선 남자 80kg급에서 2위를 차지, 미국에 출전 쿼터를 안겨 베이징행을 확정지었다.

이어 지난 4월 열린 올림픽대표 선발전에서 셋째 아들 마크 로페스(26)가 남자 68kg급에서, 막내딸 다이애나 로페스(24)가 여자 57kg급에서 베이징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하는 미국 태권도 대표 4명 중 로페스 가문 이 세 명이다.

미국에서 일가족 세 명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은 1904년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제3회 대회 체조경기의 트리플러 가문(에드워드, 리처드, 윌리엄 3형제) 이후 104년 만이다.

게다가 망형인 진 로페스(34)도 미국 태권도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어 로페스(가) 4남매가 모두 베이징에 간다.

니카라과 출신으로 1970년대 초 미국으로 건너와 정착한 부모가 맏아들 진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로페스(가)의 태권도와 인연은 시작했다.

특히 아버지 홀리와 맏아들 진의 태권도에 대한 열정은 세계적 태권도 명가로 키운 결정적 힘이 됐다.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2000년 시드니 대회에서 한국의 신준식을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건 스티븐은 "어릴 적부터 매일 아침 5시간 되면 개워 4~6시간씩 훈련을 시킨 아버지의 극성이 금메달을 따게 해줬다"고 말했다.

여덟 살 때 태권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진은 14세 때부터 집 주차장에서 직접 동생들을 지도했다.

로페스 남매의 이력은 화려하다.

진은 선수 시절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국제대회에서 30여 개의 금메달을 땀다.

스티븐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도 정상에 올라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계 선수권대회 4회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역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4연패는 중국현 한국체대 교수 (1982,83,85,87년)에 이어 두 번째일 만큼 값진 기록이다.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국 유튜브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 다 귀환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 등 징계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 실...

가짜 여성계정 운영 의혹' 소개팅앱 내부고발...권익...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볼스식...오래 기립박수 칠...

반려견도 육식보다는 채식이 더 건강하고 덜 위험해



당시 스티븐은 "꿈이 실현됐다. 가족의 도움이 컸다. 나 혼자서는 결코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태권도 명가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 했다.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이 남자 80kg급에는 출전하지 않아 스티븐은 올림픽 3연패 희망을 더욱 부풀리고 있다.

스티븐과 마크, 다이애나는 2005년 마드리드(스페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또 한 번 세계 태권도계를 놀라게 했다. 종주국 한국의 태권 전사도 모두 로페스 남매에게 무릎 꿇었다. 진은 그해 미국 태권도 올해의 지도자로 선정됐다.

신체조건이 뛰어난 로페스 가문의 남매들은 한국 사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실전 위주의 독창적인 태권도를 구사하면서 승부 근성까지 강해 쉽지 않은 상대들이다.

이번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에 도전하는 남자 68kg급 손태진(삼성에스원)과 여자 57kg급 임수정(경희대)도 각각 마크, 다이애나를 넘어서야 한다.

hosu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5/16 09:00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열뚝뚝...누가 학대했니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를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장관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 01:59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뉴스



당신을 위한 온종일 마중, 롯데캐슬
LOTTE CASTLE
www.lottecastle.co.kr

We Do Technology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모임·영업·행사 제한 등 거리두기 완전 해제...마스크는 '유자'

검수완박에 청문정국 '한동훈 블랙홀'까지...여야 끝장대치 예고

1년5개월 만에 전국 평감사회의...'검수완박 대응' 논의

기준금리 1.25→1.50% 또 인상...4%대 인플레 '불 끄기'

댓글 많은 뉴스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32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59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51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할 등재개 예열?
41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34

뭐하고 놀까? #홍→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타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데미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갈채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립	#홍

계약관계